

**From:** ilchough

**Sent:** October 21, 2011

**Subject:** FW: <田相重 칼럼>.."메아 쿨파 Mea Culpa, 내 탓이로소이다!"

## 메아 쿨파 Mea Culpa, 내 탓이로소이다!



포말에 대한 단상

바다는 요동치고..

파도는 하얀 포말이 되어

끊임없이 밀려와 자기를 부수어 댄다.

그리고 씹없이 밀려오는 잔파도는  
차잘씩 바위를 때리며  
구슬 알 같은 포말을 뿌린다.

넋을 잃고 떨어지는 포말을 바라볼 때  
지나간 바다위에서 보낸 세월의 흔적이  
뒀다 가라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물결에 섞인 포말처럼 뚱뚱 떠 간다.

이제 3 막의 언저리에서  
포말이 아픔과 상처만을 말끔하게 삼켜버려  
진정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해 본다.  
(‘시" 씹 청산 전상중)

최근 정부 조사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30 대 젊은 층은 말할 것도 없고, 60 대 이상에서도 절대다수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30 대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가장 많이 믿고 있다는 결과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자신에게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세상은 반칙이 난무하며,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믿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자신밖에 모르는 나쁜<=나쁜인>사람들도 많다.

남을 배려(配慮)할 줄 모르고, 더불어 함께 나눌 줄을 전혀 모르며, 자기 자신에겐 마냥 관대하면서도 이웃에는 무관심한 나쁜 사람들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런던 타임즈」에서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조사했었는데 상위에 뽑힌 것은 뜻 밖에도 소박한 서민들이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적게 갖고 있으면서 적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서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것이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盲人) 한 사람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손에는 등불을 든 채 길을 걷고 있는데, 그와 마주 친 마을 사람이 물었다.

‘앞을 못 보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니나요?’

맹인(盲人)이 대답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인도의 靈的 스승, 바바 하리다스의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은’에 나오는 이야기는 진정한 ‘배(配慮)’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밝힌 그 등불은 배려(配慮)와 사랑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며 외로움에 지쳐가는 이웃이 많다. 그들을 보살피고 배려(配慮)하는 마음이 진정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치는 사랑과 배려(配慮)의 크기만큼 그 빛은 밝기를 더한다.



**미국 LA의 명 칼럼니스트 조일래 선생님의 고 한주호 준위 동상 참배**

우리나라 노동부에서의 오랜 경험, 이순신 제독과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교포사회에서의 폭 넓은 인지도로 명 칼럼니스트로 자리를 잡고 계시고 필자의 칼럼도 교포 사회에 두루 전달해 해군에 대한 이해와 성원을 이끌어 주신 바가 있다. 특히 애국심과 해군 사랑이 남 달라 한국 방문 시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고 우중에도 고 '한주호' 준위 동상 참배, '세스페데스' 신부공원과 최초의 미사 집전 성지를 둘러 보셨다.

아울러 서울 시장 선거 과정에서 군 면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 지도층의 군 면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듯 하다.

6.25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해 분투하던 우리 해병대가

중공군에 사천강 전초기지를 빼앗기자 부하들을 다 잃은 김용호 소대장은 죄책감에 부하들이 잠든 고지 위에서 자결하였고,

이에 분개한 우리 해병대는 중공군의 2차 추계 공세 때 아군이 776명이 전사하고 3214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중공군이 1만 4017명이나 죽고 1만 1011명이 다치는 참패를 맛보게 했다.

그리고 김용호 소위의 3형제는 모두 전장에서 산화했다. 나중에 군에서 경북 영천에 사는 그의 부친에게 조위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두부 배달을 하던 아버지는 자식들 목숨 값을 받는 것이 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며 거절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아집과 독선 그리고 의혹이 난무하고 정책대결보다 시비를 뒤집기 위한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리는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우리 사회 풍토에서, 가뜩이나 학위와 스펙을 갖추고도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 73%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대다수가 노력만으론 성공할 수 없고, 편법과 배경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탓이 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진 자와 지도층이 먼저 이를 내 탓으로 생각하고 나눔과 패자부활전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나머지 우리 모두도 제 잘못은 선의로 덮어 버리고 남의 일은 몽땅 악의의 행동으로 내 모는 천박한 싸움에서 한시 바빠 벗어나야 한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상처가 잘 치유되고 배려(配慮)와 감사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도록 가진 자와 지도층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더 가슴을 열고 솔선해 나자.

**'메아 쿨파 Mea Culpa, 내 탓이로소이다!**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생 텍쥐베리)**



**2011 년 10 월 18 일**

**진해 천자봉 기슭에서**

**(예) 해군제독 청산 전상증 書**

**詩人, 隨筆家**

**국제 문화예술협회 '詩' 부문 最優秀 당선**